

여수시, 임대인 권리보호 본격 활동

'임대주택 분쟁조정위' 첫 회의... 옹천부영 2·3차 분양 전환 가격·하자보수 분쟁 조정 나서

여수시가 임대주택 임대인들의 권리 보호와 분쟁 해결을 위해 '임대주택 분쟁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여수시에 따르면 새롭게 구성된 임대주택 분쟁 조정위원회는 변호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주택관리사 등 관련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지난 22일 여수시청 상황실에서 첫 회의를 하고 임대인 권리 보호를 위한 실질적 행동에 들어갔다.

첫 회의는 지역사회의 관심이 집중된 옹천부영 2, 3차 임대아파트의 분양 전환 가격과 하자보수

갈등에 대한 논의로 진행됐다.

옹천부영 2, 3차 아파트는 최근 분양 전환을 완료한 1차 아파트에 비해 분양가격이 높아 임대인과 사업자인 부영 측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안전 진단 결과에 따른 하자보수도 지연되고 있어 임대인들의 불만이 많은 상황이다.

'임대주택 분쟁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가장 큰 원인인 분양가격의 경우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국부동산원의 감정평가 타당성 조사 결과를 지켜본 후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또 부영 측에 임대인이 동의하는 구체적인 하자

보수 이행계획서를 제출토록 하고, 여수시도 이행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한 번의 회의로 당사 갈등이 해결되기는 어렵겠지만, 위원들이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 분쟁이 원만히 조정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조정위원회를 통해 쌍방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조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겠다"며 "임대인들의 정당한 권리 보호와 행복한 공동주택 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

청년이 돌아오는 구례 만든다

일자리·인재육성·문화·복지 등 86억 투입 청년지원정책 집중

구례군은 '청년이 돌아오는 구례'를 만들기 위해 올해 86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등 청년지원정책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구례군은 '구례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를 통해 청년지원정책의 근거를 마련했으며 전 영역을 아우르는 최상위 기본계획인 '구례군 청년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해 분야별 청년지원정책의 체계를 마련했다.

구례군 청년발전 기본계획은 4개 분야에서 22개 과제를 목표로 한다. 일자리, 인재육성, 문화·산업,

복지 분야의 청년정책에 86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청년 일자리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희망 디딤돌 통장 운영, 월세 지원 등 청년 취업자 지원, 청년 귀농·귀촌인 정착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훈련 및 생산기반을 지원한다.

군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구례학사 운영, 인재육성장학금 지급,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한다.

청년의 문화·산업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으로

는 청년을 위한 웨디터클래스 개설 등 청년센터 운영 프로그램이 있으며, 다양한 관광상품을 개발해 관내 뿐만 아니라 관외 청년들의 유입을 유도한다.

청년 복지 실현 분야에서는 청년층 사회 참여를 위한 청년 모니터단 운영, 청년센터 워크숍을 개최한다.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결혼문화와 장려하고 출산·양육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주택구입에 따른 대출이자 지원, 결혼 축하금 지급, 임산부 영양관리 사업을 추진한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해결책은 청년인구 유입에 있다"며 "살고 있는 청년의 삶의 질을 높이고, 더 나아가 청년들이 다시 돌아오는 구례를 만들기 위해 전 분야를 아우르는 청년지원정책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지난 22일 허석 시장 등 관계자들이 제10회 대한민국 축제콘텐츠 대상을 수상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순천시 제공>

순천 푸드앤아트 페스티벌 '대한민국 축제콘텐츠' 대상

청년·문화예술인 등 함께하는 축제로 성장

순천시의 대표축제 '푸드앤아트페스티벌'이 사단법인 한국축제콘텐츠협회가 주최하는 제10회 대한민국 축제 콘텐츠 대상에서 콘텐츠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순천시에 따르면 푸드앤아트페스티벌은 지난해 코로나19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UD거리로 축제 장소를 변경하고 온라인 라이브 중계를 하는 등 다양한 변화를 통해 문화관광축제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순천을 찾는 관광객을 원도심으로 유입시키기 위해 2016년 처음 시작된 순천 푸드앤아트페스티벌은 순천의 음식과 문화예술을 접목한 순천시의 대표축제로 개발돼 지역주민이 주도적으로 만들어가는 주민주도 창조형 축제로 성장했다.

2021년 푸드앤아트페스티벌은 UD거리와 문화의 거리 일원에서 순천 대표 음식 및 주전부리 음식 개발·판매에 호응 얻었으며 지역예술인의 공연·작품을 만날 수 있는 아트마켓 등 다양한 체험 거리를 제공해 코로나19로 지친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즐거움을 주기도 했다.

시는 올해 개최될 제6회 순천 푸드앤아트페스티벌은 지난 축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위드코로나 등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한 상황별 추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시민과 관광객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축제 추진을 구상했다.

순천시 관광과 관계자는 "지난해 순천 푸드앤아트페스티벌을 순천시민과 순천을 방문한 관광객 모두가 하나 된 마음으로 안전하고 즐거운 축제를 만들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연이은 수상으로 순천 푸드앤아트페스티벌의 위상이 높아진 만큼 모두가 즐겁게 찾을 수 있는 친환경·열린 축제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순천 푸드앤아트페스티벌은 2022년 전남도 대표 우수축제로 선정돼 전남을 대표하는 축제로 위상을 인정받았으며 2019년과 2020년 대한민국축제콘텐츠 축제 관광부문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KTX 타고 섬진강 기차마을 오세요

곡성군, 패키지 출시... 초콜릿 만들기 체험 등 준비

곡성군이 한국철도공사와 공동으로 열차를 이용한 개별 자유 여행상품 '섬진강기차마을 패키지' (이하 '섬진강패키지')를 출시했다.

섬진강기차마을 패키지는 열차 왕복운임, 기차마을 입장료, 초콜릿 만들기 체험을 포함하고 있는 당일 여행상품이다. 열차 탑승은 KTX가 출발하는 용산역부터 호남선 KTX가 정차하는 역이라면 어디든지 가능하다.

초콜릿 만들기 체험은 1인 체험과 4인 체험 중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상품 예약은 레츠코레일 홈페이지에서 진행할 수 있다.

6만1400원부터 가격이 시작되며 기차마을 입장료의 경우 20%, 초콜릿만들기 체험은 5%

할인된 요금이 적용됐다. 평일 용산역에서 곡성역까지 KTX 열차 왕복 요금만해도 8만원 가량인 점을 감안하면 여행비용 상당 부분을 절감할 수 있다.

이번 패키지 상품은 지난 1월 곡성군과 한국철도공사 전북본부가 열차연계 여행상품개발 업무협약 체결로 탄생했다.

섬진강 기차마을에서는 올해부터 연중 월별로 다양한 이벤트가 펼쳐진다. 현재 화이트데이를 앞두고 섬진강기차마을 내 한국초콜릿연구소유지점에서 3월 31일까지 '이 세상 단 하나 나만의 초콜릿 만들기'를 진행하고 있다.

/곡성=박종태 기자 pjat@kwangju.co.kr

정찬주 소설 '보성강의 노래' 보성군 홈페이지서 만나요

보성군이 다음달 4일부터 매주 금요일마다 정찬주 작가의 장편 역사소설 '보성강의 노래'를 군청 홈페이지에 연재한다.

보성강의 노래는 임진왜란 당시 위기에 처한 나라를 위해 분연히 일어난 보성 의병장들의 이야기를 담은 장편소설이다. 충절의 선비 박광전·임계영 의병장과 목숨을 아끼지 않고 싸운 보성의병과 양민들을 재조명해 '의향 보성'을 알리는 장편 역사소설로 매주 35매 안팎으로 총 33회에 걸쳐 연재할 예정이다.

군은 보성의병장의 일대기와 활약을 재조명해 숭고한 애국-애족정신을 후세에 전하고, 충절의 고장인 의향 보성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널리 알리고자 군 홈페이지 연재를 기획했다.

장편역사소설 '보성강의 노래'는 군 홈페이지 팝업창을 통해 e-book과 연결된다.

정찬주 작가는 1953년 보성에서 태어나 1983년 한국문학 신인상을 수상하며 등단했다. 저서로는 장편소설 '이순신의 7년', '산은 산 물은 물', '만행', '다불' 등을 펴냈고, 2018년에는 이순신 장군과 선거이 장군의 우정을 그린 소설 '칼과 술'을 군 홈페이지에 연재하기도 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광양시장 도전' 정인화 전 의원 출판기념회

오는 6월 지방선거 광양시장 임후보 예정자인 정인화(사진) 전 국회의원이 26일 오후 2시 광양 문화예술회관에서 '감동 시대의 서막'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

이날 출판기념회는 코로나 방역지침을 준수해 '워킹 스루' 방식으로 진행되며 '저자 사인회'에 이어 '저자와의 대화 시간' 순으로 진행된다.

'감동 시대의 서막'은 1, 2부로 나뉘어 있는데 1부에는 정 전 의원이 의정활동 과정에서 느낀 소회, 2부에서는 정 전 의원이 지난 1년간 SNS에 올린 감동 이야기들을 묶었다.

정 전 의원은 이 책에서 우리나라의 당면문제

인 지방소멸, 저출산, 농촌 살리기, 미세먼지의 재앙, 청년 문제의 해결 등을 다루며 저자 나름의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정 전 의원은 1982년 행정고시에 합격한 후 전남도 대변인과 문화관광국장, 여수시 부시장 등을 역임했다. 20대 국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으로 활동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h2>장성 토지(매매 분양)</h2> <p>광주에서 20분(6M도로접), 장성댐 (호) 2분, 장성 IC. 5분</p> <p>총 1760평 (150평, 200평, 500평, 분할가능) [전원주택,물류창고,주말농장,별장,투자적합]</p>	<h2>상가매매(상무지구)</h2> <p>중심상업지역 6층, 7층 (총분양 140평)</p> <p>시세 -> 9억</p> <p>급매가 -> 6억</p> <p>(보 3천, 월 350만, 용 3억5천)</p> <p>(사무실 리모델링함,빠,유휴,모든업종가능 즉시입주 시비없음)</p>	<h2>경매교육 [특수전문반]</h2> <p>기초반,중급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수반모집 -> 유치권, 법지, 지분, NPL(전문) 전문반모집 -> 직업으로 하실분 (경매배우면서 수익가능) 기초반, 중급반, 특수반 => 평생 회원반 <table border="1"> <tr><td>광주</td><td>남구 행암동(임야) ▶ 감정가 97억 -> 54억 (2/23)</td></tr> <tr><td></td><td>서구 화정동(주택) ▶ 감정가 3억7천 -> 3억 (2/23)</td></tr> <tr><td></td><td>북구 일곡동(근린주택) ▶ 감정가 6억1천 -> 4억8천 (2/23)</td></tr> <tr><td></td><td>북구 본촌동(근린시설) ▶ 감정가 15억 -> 11억 (3/2)</td></tr> <tr><td></td><td>광산구 소촌동(농지) ▶ 감정가 4억4천 -> 3억1천 (3/3)</td></tr> <tr><td></td><td>서구 화정동(주택) ▶ 감정가 2억5천 -> 1억7천 (3/4)</td></tr> <tr><td></td><td>광산구 삼거동(임야) ▶ 감정가 3억9천 -> 1억7천(3/15)</td></tr> <tr><td>전남</td><td>진도군 진도읍(근린시설) ▶ 감정가32억 -> 18억 (2/21)</td></tr> <tr><td></td><td>목포시 옥암동(근린시설) ▶ 감정가 25억 -> 11억 (2/28)</td></tr> <tr><td></td><td>나주시 금천면(주택) ▶ 감정가 4억1천 -> 2억9천 (3/15)</td></tr> <tr><td></td><td>나주시 다도면(주택) ▶ 감정가 9억9천 -> 5억5천 (3/15)</td></tr> <tr><td>시외</td><td>당진시 송산면(다가구원룸) ▶ 감정가 4억8천 -> 8천 (2/15)</td></tr> <tr><td></td><td>서울특별시 중랑구(근린주택) ▶ 감정가 17억 -> 8억8천(3/2)</td></tr> </table>	광주	남구 행암동(임야) ▶ 감정가 97억 -> 54억 (2/23)		서구 화정동(주택) ▶ 감정가 3억7천 -> 3억 (2/23)		북구 일곡동(근린주택) ▶ 감정가 6억1천 -> 4억8천 (2/23)		북구 본촌동(근린시설) ▶ 감정가 15억 -> 11억 (3/2)		광산구 소촌동(농지) ▶ 감정가 4억4천 -> 3억1천 (3/3)		서구 화정동(주택) ▶ 감정가 2억5천 -> 1억7천 (3/4)		광산구 삼거동(임야) ▶ 감정가 3억9천 -> 1억7천(3/15)	전남	진도군 진도읍(근린시설) ▶ 감정가32억 -> 18억 (2/21)		목포시 옥암동(근린시설) ▶ 감정가 25억 -> 11억 (2/28)		나주시 금천면(주택) ▶ 감정가 4억1천 -> 2억9천 (3/15)		나주시 다도면(주택) ▶ 감정가 9억9천 -> 5억5천 (3/15)	시외	당진시 송산면(다가구원룸) ▶ 감정가 4억8천 -> 8천 (2/15)		서울특별시 중랑구(근린주택) ▶ 감정가 17억 -> 8억8천(3/2)
광주	남구 행암동(임야) ▶ 감정가 97억 -> 54억 (2/23)																											
	서구 화정동(주택) ▶ 감정가 3억7천 -> 3억 (2/23)																											
	북구 일곡동(근린주택) ▶ 감정가 6억1천 -> 4억8천 (2/23)																											
	북구 본촌동(근린시설) ▶ 감정가 15억 -> 11억 (3/2)																											
	광산구 소촌동(농지) ▶ 감정가 4억4천 -> 3억1천 (3/3)																											
	서구 화정동(주택) ▶ 감정가 2억5천 -> 1억7천 (3/4)																											
	광산구 삼거동(임야) ▶ 감정가 3억9천 -> 1억7천(3/15)																											
전남	진도군 진도읍(근린시설) ▶ 감정가32억 -> 18억 (2/21)																											
	목포시 옥암동(근린시설) ▶ 감정가 25억 -> 11억 (2/28)																											
	나주시 금천면(주택) ▶ 감정가 4억1천 -> 2억9천 (3/15)																											
	나주시 다도면(주택) ▶ 감정가 9억9천 -> 5억5천 (3/15)																											
시외	당진시 송산면(다가구원룸) ▶ 감정가 4억8천 -> 8천 (2/15)																											
	서울특별시 중랑구(근린주택) ▶ 감정가 17억 -> 8억8천(3/2)																											

010-6670-9800